



암,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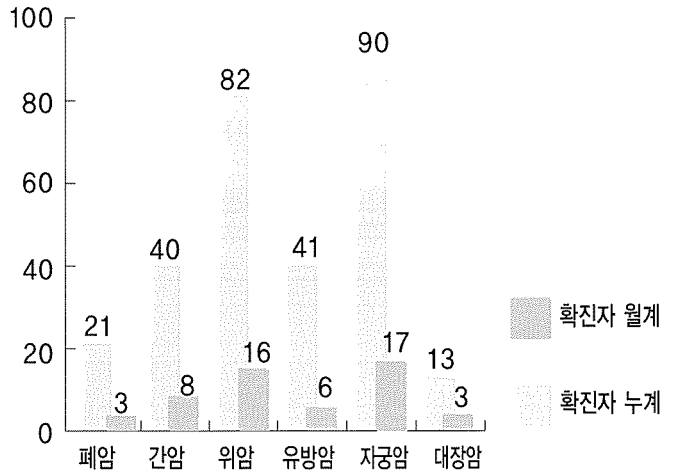
오늘도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국민들을 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검진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폐암 조기 발견 사례	· 서울 장안동에 거주하는 정○○(여, 62)씨는 중암검진센터에서 폐암 의심소견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다.
	·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는 전○○(남, 67)씨는 광주·전남지부에서 폐암 의심소견을 받고, 전남대학병원에서 현재 치료 중에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2005년 주요 암 발견현황]

6월 암의심 소견자 489명
 확진자 : 53명

연간 암의심 소견자 누계 2,474명
 확진자 누계 : 287명



폐 암

폐암이란?

폐암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무절제하게 빠른 속도로 증식되면서 발생한다. 폐암은 주로 한쪽 폐로부

터 시작하여 임파절, 그리고 폐내의 다른 조직들로 전이 되고 결국은 양폐 모두로 확산되는데, 임파절이나 혈액을 통하여 몸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다. 폐암이 잘 전이되는 장기로는 뼈, 뇌, 간, 부신, 신장, 심장 등이 있다.



폐암의 원인

폐암의 95%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의 발암물질에 의한 것이다.

폐암은 어느 암보다도 그 발생이유가 가장 분명하다. 즉,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은 흡연자이다. 그러나 모든 흡연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폐암 환자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담배는 여전히 폐암의 중요한 발암물질 중의 하나이며, 폐암 판정을 받은 흡연자라면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폐암의 증상

전형적인 폐암환자의 모습은 50~60대의 도시 주민으로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이다. 하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남자와, 흡연력이 전혀 없는 여성에게서 발견되기도 한다.

폐암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5%에 달하지만 일반적으로 폐암의 자각증상은 우선 식욕이 감소하고 체중이 줄며 권태와 피로, 호흡곤란 등을 느끼게 된다.

폐암의 초기에는 아래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

■ 기관지 폐 증상

짙은 기침과 가래가 많아졌으며 피를 토하는 객혈을 한다. 짙은 호흡곤란과 호흡기질환을 가져오며 가슴, 어깨 등의 통증을 수반한다.

■ 폐장 외 흉곽내 증상

신 목소리가 나며 우상폐엽의 폐암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상대정맥의 압박으로 머리, 목 또는 상지에 부종이 생기고(붓고), 그밖에 청색증, 두통, 의식 혼란 등이 오며 폐

암이 흉벽으로 직접 침범할 경우 주로 흉벽의 통증이 생기고 팔을 따라 통증이 전달된다.

■ 흉곽 외 전이 증상

신경증상과 뼈의 통증 또는 골절이 있다. 신경증상은 뇌전 때문에 생기고, 반신마비, 간질, 성격변화, 의식혼란, 언어장애, 두통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뼈에는 골절이 생기고,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있다.

■ 기타의 증상들

부신생물중후군으로 폐암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성분들에 의해 빈뇨, 혼미, 혼수, 저혈당, 관절통, 저나트륨증 등이 나타난다.

폐암의 치료

폐암은 비소세포암과 소세포암으로 나눈다.

■ 비소세포암의 치료

조기에 발견하여 절제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진단 시기가 늦어 제 3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수술 대상자 중 약 절반 정도이다. 3기 이후에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해야 한다.

■ 소세포암의 치료

대부분 항암제 치료를 시행한다. 국소적인 경우에는 외과적 절제를 시행할 수도 있으며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다. 항암제 치료에 반응을 잘하지만 재발과 전이가 비소세포암보다 잘 나타난다. ㉞